

어째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인가?

교수칼럼

김 정 남
한국어학과 교수



시대가 참 많이 변하였다. 예전에는 서로 얼굴도 모르던 남녀가 중매쟁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선을 보고 간접 대화를 주고받아 의견을 교환하며 결혼을 했던 시절도 있었다지만, 그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여 먼 곳의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지만 상당한 시간 간격을 요하는 일이었다. 기술은 더욱 진보하여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고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은 서로 얼굴은 마주하지 못한 채 소리만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혹은 컴퓨터 통신이 시작된 초기처럼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였다. 말과 글을 주고받지만 상대방의 생김새를 알 수 없는 시기가 한동안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대면’을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얼굴을 모른 채 서로 온라인 채팅만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했다가 오프라인으로 실제 만남을 가진 후 실망하거나 더 이상 만남이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화상 기술의 발달로 사진의 전송뿐 아니라 실시간 화면을 통해 상대방을 마주 보며 대화를 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기술이나 기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장소만 다를 뿐 시간을 공유하며 상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대로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른바 ‘원격’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일 뿐 동시에 모습을 보기에 같은 장소에 있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같은 자료를 보고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느낌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는 ‘진짜 실시간’ 소통

바로 이러한 현장감은 이미 팩시밀리나 파일 전송 등의 방식으로 우리 앞에 와 있었다.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사진=unsplash)

원본을 전달할 필요 없이 “원격 복제”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화상 회의 툴을 통해서 “진짜 실시간”으로 사람들 간의 공유와 소통이 가능해졌다. 동일 공간에 있다고 느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되니 영화 “The Fly(1986)”의 주인공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진다. 옷을 갈아입을 때 고르는 시간조차 아까워 같은 옷을 여러 벌 옷장에 걸어놓고 입을 만큼 시간을 절약해 연구에 몰두했던 과학자가 결국 자신을 대상으로 한 전송 실험에 실패해서 몸 속에 ‘파리’의 유전자들 둔 채 살아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 결국 그 “거리를 초월하고자 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공간을 뛰어 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결국 인간의 지나친 욕망이었고 초월적 존재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단죄하는 듯하여 그 주인공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우리는 현재 그 방식을 바꿔 “거리”를 포기하고 동시간 속 많은 것을 공유하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왜 굳이 ‘비대면’ 인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나는 이러

한 현장감에 왜 굳이 “비대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지가 의문스럽다. 진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니 대면이 아니라고 항변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 만져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하는 얼굴만이 얼굴은 아니지 않은가? 그 사람의 현재 기분이나 꾸밈의 정도나 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화상 대화가 왜 대면 대화가 아닌지 알 수 없다.

2020년 1학기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이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는 이를 원격 수업이라 부를지언정 ‘비대면’이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얼굴을 한쪽만 일방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카메라를 켜기만 하면 서로 보면서 실감나게 현장감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결코 ‘비대면’ 환경은 아닌 것이다. 물론 단어의 의미는 사용에 따라 달라지고 문맥에 의해 결정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굳이 ‘비대면’이란 단어를 이용하여 이러한 상황을 지칭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온라인 수업’이 기존의 플랫폼에 자료를 탑재하는 방식인 수업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혼동을 준다면 ‘원격 수업’이라는 단어를 쓸 만하다고 생각한다. ‘실시간 원격 수업’ 혹은 ‘녹화본 재생 수업’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여 지난 학기를 지내 왔다. 후자의 경우에는 얼굴을 마주하기도 어렵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불가능하니 비대면 수업이 맞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안 켜 상대방이 ‘비대면’이고 카메라를 켜는 때는 당연히 ‘대면’이다.

비대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대면시대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원격 수업에서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도 모두 카메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교감하는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실제로 만날 수는 없지만 화상을 통해 얼굴을 마주하며 실제 강의실에서와 다를 바 없는, 아니 더 효율적인 강의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서이다. 여기에 굳이 ‘비대면’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그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지난 학기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시험 시간 외에는 카메라 켜기를 종용할 수 없었다. 카메라를 켜게 하는 것이 무언가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범이나 강요라고 느끼는 사회문화

적 분위기가 내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이 교실에 나올 때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가리고 나오는 것이 아닐진대 원격 강의실에 입장하면서 카메라를 켜지 않는 것이 디폴트(기본 설정)일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었다. 물론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전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선택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처신이어야지 기본일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 것이다.

결국 “비대면”이라는 단어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묻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진행되면 실시간도 비대면이라는 식의 생각이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깨닫고 단어를 고쳐 사용하는 성숙함을 보였으면 한다.

“대면”이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함.”이다. ‘공동 공간’ 같은 의미는 그간의 기술의 한계에 의한 문화적인 함의일 뿐이다. 우리는 현재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대면이 가능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강요에 얼굴을 숨기는, ‘익명’을 넘어서 ‘익면’까지 보태지는 말자.